

有溝石斧 再檢討

盧 焮 眞*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발생 및 형식문제의 재검토 |
| II. 발생, 용도, 형식분류에 대한 기존해석 | V. 용도의 재검토 |
| III. 소속문화의 특색 비교 | VI. 맺음말 |

< 요약 >

유구석부는 크게 '장방형 또는 梯形의 부싯단면 - 斜刀 - 梯形溝'와 '말각삼각형 또는 터널형의 부싯단면 - 직인 - 弧形溝'를 특색으로 하는 두 형식으로 구분되며 약간의 변형과 아종이 나타나고 있다. 전자는 소위 송국리형 문화, 후자는 점토대토기 문화에서 사용되었으며, 전자에서 후자가 형식변화된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양 문화의 출현배경, 확산범위, 전파의 向方과 이주의 속도, 유적의 지리적 위치와 취락의 지형적 입지, 단일취락내 주거지의 숫자와 개별 주거지의 크기 등을 비교할 때, 두 문화는 사회성격과 생계경제방식이 분명히 다른 것으로 판명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문화적 토양을 고려할 때, 유구석부가 1식에서 2식으로 형식변화되었다고 피상적이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각 형식이 소속한 문화의 독자적인 필요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이해하는 독자발생의 시각이 두 형식의 출현과 상호관계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제공한다. 필자는 이러한 유구석부 1, 2식의 출현배경과 형식의 독자성을 고려하여 각각 제구석부와 호구석부로 명명하였다.

유구석부의 용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제구석부와 호구석부 모두 목공전용구로 알려져 왔으나, 소속 문화의 사회성격과 생계경제방식 및 마제석기 조합상을 비교할 때, 제구석부는 목공전용구로 사용되었으나, 호구석부는 그 외에 굴지구와 무기 등의 기능을 포함한 多目的 打擊道具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구석부는 지금까지 밝혀진 송국리형 문화의 정착농경문화의 생활방식이 필요로 하는 전형적인 목공전용구로 사용된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호구석부는 앞으로 그것이 속한 점토대토기 문화의 사회성격과 생계경제방식이 밝혀져 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더욱 구체적으로 판명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독특한 溝를 지님으로서 다른 석기와 구분되는 유구석부는 무문토기문화의 다종다양한 마제석기가운데 하나이다. 유구석부에 대한 종합적 고찰은 필자의 시도가 있었고¹⁾ 최근 배진성이 현재까지 확인이 가능한 유구석부 자료를 총망라하여 새롭게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²⁾ 이로 볼 때 유구석부는 오랜 동안 무문토기문화 연구자들 사이에서 별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유구석부가 속한 무문토기문화에 대한 새로운 고고학적 사실은 급증하여왔으며, 이와 더불어 무문토기문화의 제 측면에 대한 시각과 문제의식도 80년대 초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파악된 무문토기문화의 실상과 그에 대한 논란의 수준에서 유구석부의 발생, 용도, 형식을 포함한 제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글을 쓰게된 것이다.

II. 발생, 용도, 형식분류에 대한 기존해석

유구석부의 발생에 대한 설명은 외부기원설과 한반도 내, 즉 무문토기문화내 자체발생설로 양분된다. 가장 최근에 유구석부에 대한 총정리를 시도한 배진성은, 유구석부란 한반도 자생인 동시에 기존의 자귀(Adze)에서 형식 발전한 것이 아닌 신형의 고안품이라는 필자의 자체발생설과 화남유단석부설이나 서북지방유단석부설 등과 같은 외부기원설을 검토한 후, 유구석부는 남한의 주상편인석부가 형식변화, 기능향상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한반도 특유의 석부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³⁾ 이 견해는 한반도 안, 구체적으로는 소위 송국리형 문화에서 유구석부가 처음 출현하였다는 점에서 필자의 한반도 자체발생설과 공통되지만, 필자는 유구석부 자체가 독자적인 고안(Invention)이고, 그러한 고안을 가능케 한 토양은 무문토기문화의 다종다양한 마제석기전통가운데의 單刃石斧類라고 이해한 반면, 그는 기존의 단인주상석부가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서 형식변화를 거친 것이 溝가 있는 단인주상석부 즉 유구석부라고 보고

1) 盧懋眞, 有溝石斧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 第八十九輯, 1981, 1-72.

盧懋眞, 有溝石斧遺蹟의 性格考察, 翰林大學 論文集 第 1 輯, 1983, 47-86.

2) 裴眞晟, 韓半島 柱狀片刃石斧의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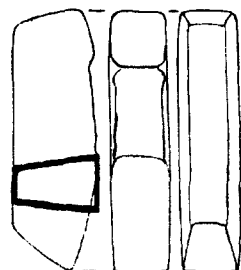
3) 배진성, 전계서(주2)

있다. 즉, 필자는 마제석기를 성용한 무문토기문화에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Adze가 사용되다가 그러한 도구셋트 안에 새로운 도구인 유구석부가 추가되었다고 보는 것이라면, 배진성은 그러한 Adze 가운데 하나인 주상편인석부가 기능향상을 위한 형식변화를 거쳐가면서 최종적으로 도달한 단계라고 보는 것이 두 입장의 차이이다. 그러나 두 견해는 결과적으로 유구석부가 한반도의 소위 송국리형 문화 안에서 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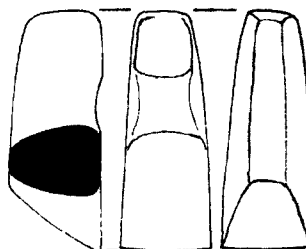
유구석부의 용도에 대하여 필자는 기존의 만능도구설이나 굴지구설을 비판하고 목공전용도구로서 무문토기문화에서 사용된 각종 마제석부가 벌목, 절단, 절개 등의 1차적 도구인 반면, 유구석부는 2차 가공도구라고 주장하였고, 배진성은 무문토기문화의 농경생활이 발달함에 따라서 주상편인석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그러한 필요가 결국 기존 주상편인석부의 가장 발달된 형식으로서의 유구석부를 만들어내었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목공구설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발생과 용도문제와는 달리, 형식문제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필자와 배진성의 시도 외에는 이렇다할 안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유구석부를 1식과 2식으로 大分하고 나머지 것들은 아종과 변이로 취급하였다.⁴⁾ 1, 2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溝의 형태)	(斧身횡단면)	(刃의 형태)
1식	梯형	장방형, 제형	사인
2식	弧형	터널형, 삼각형	직인



1식



2식

< 유구석부 그림 >

4) 노혁진, 전계서(주1)

한편, 배진성은 유구석부를 포함한 주상편인석부를 5형식으로 세분한 후, 4식 단계에서 필자의 1식에 해당하는 사인과 장방형 또는 제형 횡단면의 유구석부가 등장하고, 마지막 5식 단계에서 필자의 2식에 해당하는 호형구, 삼각형 또는 터널형의 횡단면, 직인의 형식으로 변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⁵⁾ 이러한 두 입장을 비교하면 우선 전자가 후자보다 선행한다는 것과 전자는 송국리형 문화에 속하고, 후자는 한국식 청동문화 또는 점토대토기 문화에 속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그러나 필자는 전자에서 후자로의 변화는 형식적 발전으로 본 반면, 배진성은 그것을 퇴화된 것으로 보는 점이 다르다. 즉 필자의 관점은 1식보다는 2식이 기능적으로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도 2식이 1식보다 발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후자의 관점은 주상편인석부가 자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능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발전된 상대가 4식 단계이고, 이 단계를 지나 점토대토기 문화에 이르면 5식으로 퇴화하면서 철기문화유입 즈음에서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위와 같이 그 동안 유구석부에 대하여 종합적 고찰을 시도한 사례가 들밖에 없기 때문에 두 입장의 발생, 용도, 형식문제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러나 두 입장 모두 그 동안 진전된 한반도 무문토기문화 연구의 실정에 비추어 재검토해 본 결과, 모두 비판과 수정의 여지가 있으며, 여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유구석부의 용도와 발생 등에 대한 기존의 다른 주장들도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것들을 다 모아서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Ⅲ. 소속문화의 특색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구석부를 목공구용 마제석기를 성용하는 문화풍토에서 발생한 독특한 신종고안품이라고 간주하던, 목공구 전용 주상편인석부의 사용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溝를 추가한 것, 즉 개량된 주상편인석부에 다름이 아니라고 보던 간에, 유구석부라는 별도의 정의를 내리게 만드는 것은 구의 존재이다. 따라서 필자의 1식은 부여 송국리 주거지에

5) 배진성, 전계서(주2)

서 정식 출토되었고⁶⁾ 그 후 소위 송국리형 문화에 속하는 여러 주거유적에서 출토됨으로서 그것이 송국리형 문화의 소산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즉 송국리형 문화를 영위한 사람들이 1식 유구석부를 처음으로 만들어 썼다고 보게되는 것은 현재까지 나타난 자료가 뒷받침해주는 주장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2식 유구석부는 점토대토기 문화 또는 한국식 청동문화에 속하는 사실도 현재까지의 자료가 뒷받침해주는 주장이다. 필자가 유구석부 2식을 설정할 당시에는 아직 정식발굴자료는 없었으며, 지표 채집된 자료일괄에 나타나는 공반유물상을 근거로 하였으나, 그 뒤로 충남보령군교성리유적⁷⁾, 강원도양구군해안유적⁸⁾, 강원도춘천시칠전동유적⁹⁾ 등지에서 소위 점토대토기 문화의 주거지가 조사, 발굴되고, 그 안에서 유구석부와 점토대토기가 함께 출토됨으로서 그 소속관계가 분명해지게 되었다.

송국리형 문화는 한반도 南半의 중서부와 서남부를 주된 분포권으로 하고 있으며, 동남부와 일본에까지 진출하였으며, 그 출현시기가 소위 공렬토기 문화의 출현시기보다는 늦다고 보는 것이 무문토기문화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통된 견해이다. 이 문화의 출현배경과 유입 또는 전파경로는 아직 불명이지만 독특한 원형과 타원형 계열의 주거지와 외반구연단경평저호 등의 독자적인 문화특색을 갖추고 있는 사실도 무문토기문화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반화된 지적이다. 또한 통상 무문토기문화의 후기단계로 보는 점토대토기 문화 또는 한국식 청동문화도 독특한 한국식 청동기조합, 단면원형점토대토기, 대족토기, 직립장경호, 우각형과수부호 등으로 구성된 토기유형을 포함하는 독자적인 문화특색을 갖추고 있다. 이 문화의 출현에 관하여는 각형토기 문화나 송국리형 문화 등과 같은 한반도 안의 무문토기문화로부터 발전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요녕지방에서 그 기원을 찾는 관점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¹⁰⁾ 이와 같이 송

6) 國立中央博物館, 松菊里 I(1978), III(1987).

國立扶餘博物館, 扶餘郡, 松菊里 VI, 2000.

7) 國立扶餘博物館, 保寧 校成里 집자리, 國立扶餘博物館古蹟調查報告 第 1 冊, 1987.

8) 金秉模의, 江原道の 考古學資料, 民統線北方地域資源調查報告書, 江原道, 1987, 296-303.
江原道, 楊口郡, 江原大學校, 楊口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1997, 72-78; 223-246.

9) 翰林大學校博物館, 韓國土地公社, 漆田洞 粘土帶土器 遺蹟 發掘調查報告書,
翰林大學校博物館 研究叢書 9, 1996

10) 李健茂, 韓國式 銅劍文化의 性格 - 成立背景에 대하여 -, 東아시아의 青銅器文化,
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제3집,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4, 155 - 182.

朴淳發, 漢江流域의 基層文化와 百濟의 成長過程, 韓國考古學報 第36輯, 1997, 7-44.

국리형 문화와 점토대토기 문화는 모두 한반도 중부이남에서 확산된 점에서 공통성을 보이지만 한반도 내 출현의 배경과 경로뿐만 아니라 토기상과 마제석기상, 주거지의 구조 등 구체적인 고고학적 문화내용에 있어서 독특하고 총체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유구석부에 대한 형식분류는 모두 1식을 송국리형 문화의 소산으로 보고 2식을 점토대토기 문화의 소속으로 보는 동시에 1식에서 2식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1식에서 2식으로의 변화되는 원인과 실상을 이해하려면 1식과 2식이 속한 송국리형 문화와 점토대토기 문화의 특색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나아가서 그러한 비교의 결과에 따라서 유구석부의 용도와 형식 및 발생의 문제에 대한 기존의 주장이 재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석의 도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무문토기문화 연구자들이 지적해온 바와 같이 송국리형 문화와 점토대토기 문화는 제반 문화특색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지리적 분포를 보면, 송국리형 문화는 한반도 중부이남의 충청, 전라, 경남에 국한되고 경기도와 강원도의 영서지방에 해당하는 한반도 중부와 그 이북, 그리고 동해안지방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점토대토기 문화는 충청, 전라, 경상 등 한반도 남반부의 전역에서 나타나는데, 송국리형 문화가 나타나지 않는 강원도와 경상도의 동해안지방과 서울과 경기도 및 강원도 영서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문화는 전체 분포권역이 상당히 중복되는 동시에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주장을 보면, 송국리형 문화의 출현계기나 前型은 아직 불명이지만 출현시기에 관한 한 점토대토기 문화의 출현시기보다 이른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있으며, 제주도 삼양동유적¹¹⁾과 같은 말기유적은 철기출현시기 전후까지도 존속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점토대토기 문화의 상한은 한국식 청동기조합의 편년에 비추어 대략 기원전 4세기를 상회하기 어렵고, 철기가 기원전 3세기경에 출현하면서 청동기를 대체해 가는 것을 고려하면 순수한 청동기조합을 사용했던 점토대토기 문화도 기원전 3세기를 고비로 점차 쇠퇴하였고, 따라서 점토대토기 문화의 전성기는 대략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전 2-3세기까지가 된다.

11) 濟州大學校博物館, 濟州三陽洞遺蹟, 현장설명회자료, 1999.

이러한 두 문화에 대한 개략적인 시기 비정이 앞으로 어느 정도 고고학적으로 뒷받침을 받게 될지는 두고보아야겠으나, 송국리형 문화에서 점토대토기 문화가 생성된 것이 아닌 이상, 전자의 말기가 후자의 초기가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는 두 문화 모두의 소멸시기는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두 문화 존속시기에 대한 절대연대의 확립 문제는 통계적으로 신빙성이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가 축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최소한 송국리형 문화가 점토대토기 문화보다는 적어도 2-3세기 정도는 먼저 출현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러한 두 문화집단의 지리적 분포범위와 출현과 존속의 시기를 고려할 때, 우선 2-3세기 먼저 한반도 남반부에 출현한 송국리형 문화의 전파범위가 역시 한반도 남반부에서 後出한 점토대토기 문화의 확산영역보다 좁게 나타나는 것은 두 문화의 주체집단의 사회성격이나 생계경제방식에 있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부연하면, 불과 수세기 동안에 점토대토기 문화는 서해안 가장자리의 백령도로부터¹²⁾ 서울의 응봉과 망우리 등지와¹³⁾ 경기도 구리시 수석동¹⁴⁾ 등 한강 하류 역을 거쳐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과¹⁵⁾ 온의동¹⁶⁾ 등의 북한강 상류 역을 지나 강원도 영서지방의 최고오지에 해당하는 태백산맥 심산협곡의 양구군 해안¹⁷⁾ 뿐만 아니라 태백산맥을 넘어서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와¹⁸⁾ 양양군 현남면 임호정리¹⁹⁾ 등지의 강원 영동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東進못지않게 점토대토기 문화는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식 청동문화의 분묘유적과 점토대토기 출토유적의 분포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반도의 서남부와 동남부로도 활발한 진출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후출한 문화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수세기 앞서서 출현한 송국리형 문화는 북상과 동진을 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동남진과 남진만을 하게 된 것과 상대적으로 확산의 속도가 훨씬 떨어지고 있는 사실은 무언가 사회성격이나 생계경제방식에서 두 문화의

12) 韓國考古學會, 考古學 第三輯, 1974, 152-153, 161.

13) 李白圭, 京畿道出土 無文土器 磨製石器, 考古學3, 1974, 53-129.

14) 金元龍, 水石里 先史時代 聚落住居址, 韓國考古學研究, 一志社, 1992, 384-394.

15) 翰林大學校博物館, 전계서(주9).

16) 임세권, 춘천시 온의동 무문토기 유적, 史叢 21, 22, 1977, 75-92.

17) 金병모외, 전계서(주8).

18) 한림대학교 박물관 발굴조사단, 동해-주문진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발표자료: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점토대토기 유적, 2000, 6.

19) 강릉대학교박물관, 동해고속도로(동해-주문진간) 건설지역 문화유적 시굴조사 현장발표자료, 2000, 6.

중세집단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 두 문화의 차이는 다른 측면에서도 추적이 가능하다.

송국리형 문화는 그 분포의 북단이 한반도 중서부를 상회하지 못하고 현 충남을 중심으로 동과 남으로 전파하여 호남과 영남을 거쳐 일본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단 처음 등장한 위치로부터 북쪽보다는 농경에 호조건을 지닌 남쪽으로의 전파성향과 저구릉 평야지대라는 취락의 입지, 그리고 송국리 유적의 탄화미 출토²⁰⁾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송국리 문화인들은 정착농경문화인이 분명해 보이는데 최근에는 그 주된 생계경제로서 수전 경작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²¹⁾ 한편 송국리형 문화의 독특한 원형 주거지의 간편한 구조에 근거하여 이들이 다른 무문토기문화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강한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주장도 있다.²²⁾ 그러나 이들이 기본 생계로 영위한 쌀농사는 정착취락생활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쌀농사를 기본생계수단으로 하면서 정착지를 이동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다 같은 정착농경민인 장방형이나 방형의 수혈주거지를 채택한 공렬토기 문화나 각형토기 문화인들에 비하여 특별히 송국리형 문화인이 더 이동성이 강하다는 발상은 앞으로 다른 측면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동일한 정착농경문화의 확산속도 문제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굳이 비교한다면 그 분포가 서북지방에 집중되고 경기도 일대에 파급된 각형토기 문화나 한반도 남반부에 국한하여 확산된 송국리형 문화보다 함경북도에서 서북지방 일부와 한반도 남단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울릉도에까지 확산된 공렬토기 문화인의 이동속도보다 빨랐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송국리형 문화집단의 사회성격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송국리형 문화도 각형토기문화나 공렬토기 문화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착취락생활을 영위한 집단의 하나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주거지를 비교하면, 경기도 구리시 수석동²³⁾,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²⁴⁾, 충남 보령군 교성리²⁵⁾, 등지에서 나타난 고지나 비탈면의 부정형이나 말각방형 형태로 보이는 점토대토기 문화의 주거지는 아직은 발굴사례가 적기 때문에 경기도 파주군 옥석리²⁶⁾나 여주군 혼암리²⁷⁾, 서울시

20) 國立中央博物館, 松菊里 I(1978), 松菊里 III(1987).

21) 安在晧, 韓國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第43輯, 2000 10, 41-66.

22) 安在晧, 松菊里類型의 檢討, 嶺南考古學 第11號, 1992, 1-34.

23) 김원용, 전계서(주14)

24) 한림대학교박물관, 전계서(주9).

25) 國立扶餘博物館, 保寧 校成里 집자리 - 發掘調査中間報告書 -.

國立扶餘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1冊, 1987.

26) 金載元 尹武炳, 韓國支石墓研究, 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六冊,

國立中央博物館, 36-40.

27) 서울대학교博物館, 欣岩里 I - IV, 1973, 4, 6, 8.

역삼동²⁸⁾ 등지의 공렬토기 문화의 대표적인 주거지로 밝혀진 잘 짜여진 장방형이거나 송국리형의 독특한 원형계열의 주거지와 같이 정립된 유형을 수립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조사된 위와 같은 점토대토기 주거지는 송국리형 원형주거지와는 그 형태와 구조에 있어서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두 문화의 입지조건을 살펴보면, 송국리형 문화의 주거지는 송국리유적²⁹⁾이나 보령관창리유적³⁰⁾과 같이 낮은 완만한 경사를 지닌 저구릉 지대에 취락을 이루고 있으나, 후자는 구리시 수석동, 보령군교성리, 춘천시칠전동 등지와 같이 야산의 높은 지대에 자리잡고 있으며, 백령도³¹⁾와 같이 서해안의 해안선지대뿐만 아니라 강원도 양구군해안과 같이 북한강 최상류의 태백산맥 심산오지에서도 존재가 확인되는 등 입지조건에 있어서 송국리형 주거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독특한 점토대토기 주거지의 입지를 유적사례를 통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난 2000년에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동시에 두 곳에서 점토대토기 주거지가 발굴되었다. 강릉시 양양군현남면 임호정리 유적에서는 산자락 구릉 상단에서 점토대토기 주거지 1기가 발굴되었고³²⁾,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유적은³³⁾ 가파른 산자락의 비탈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가파른 비탈면에서 2차 퇴적이 아닌 주거유구가 谷間과 곡간 사면에서 확인되었다. 양 지역 모두 지형적으로 볼 때 정착취락이 자리잡기에는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심한 태백산맥의 산줄기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러한 강원도 영동지방 점토대토기 유적의 입지조건은 물론 공렬토기 문화나 송국리형 문화의 입지조건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강원영동 점토대토기 유적과 비슷한 입지는 강원영서의 춘천시 칠전동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칠전동에서는 산정상부뿐만 아니라 가파른 산사면을 'ㄴ' 자식으로 파서 만든 부정형의 소형 유구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입지는 강원도에서는 송국리형 문화주거지가 발견되지 않

28) 林炳泰, 驛三洞 住居址 發掘報告, 韓國 青銅器文化의 研究, 學研文化社, 1996, 229-258.

29) 國立中央博物館, 松菊里 I(1979), II(1986), III(1987)

國立扶餘博物館, 扶餘郡, 松菊里 VI, 2000

30) 高麗大學校 埋葬文化研究所, 寬倉里遺蹟, 2001.

31) 韓國考古學會, 白翎島 出土 黑陶長頸壺, 考古學3, 1974.

32) 강릉대학교박물관, 동해고속도로(동해-주문진간) 건설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자료, 2000, 6.

33) 한림대학교 박물관 발굴조사단, 동해-주문진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자료, 2000, 6.

고 있으나, 춘천시 서면 신매리 주거지³⁴⁾와 같이 춘천일원에서 발견된 공렬토기 문화 주거지의 입지인 저구릉 평지나 강변충적평야와는 그 위치나 지형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토대토기 주거지의 독특한 입지는 양구군 해안 유적에서는 또 다른 면모를 보인다. 해안유적에서는 점토대토기 문화유형의 독특한 대족토기, 조합식 우각형 파수부와 함께 다수의 유구석부도 발견되었다. 이 곳은 한반도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점토대토기 유적가운데 가장 내륙 깊숙한 곳으로서 지금도 오지중의 오지이며 최전방 군사보호구역에 해당된다. 이곳의 한겨울 혹한과 삭풍은 군인들도 견디기 힘들 정도인데 이러한 삭막한 곳에 선사시대의 점토대토기 문화인들은 주거를 이룩하고 있는 사실은 이들의 생활방식이 다른 무문토기문화인들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면모를 지니고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보아야한다. 그런데 점토대토기 유적은 이와 같이 한반도의 최고 심산유곡뿐만 아니라 백령도와 같은 서해안의 가장자리 도 서지방에서도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입지양상과 함께, 점토대토기 문화의 독특한 사회성격이나 생계경제방식을 시사하는 또 하나의 특색은 취락의 규모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송국리형 문화유적은 모두 구제발굴된 것이어서 취락의 전체범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취락의 상당부분을 발굴한 것으로 보이는 부여 송국리³⁵⁾에서 40기 이상, 그리고 보령 관창리³⁶⁾에서 100기의 주거지가 발견되었다. 이와 함께 저구릉 평지라는 입지를 고려하면 송국리형 집단의 하나의 독자적인 취락의 규모는 그 이상의 가수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지금까지 조사된 점토대토기 문화유적을 보면, 각 유적의 전체범위도 적지만, 한 유적 내에서 발견된 주거지의 숫자도 적다. 예를 들면, 사람이 기거하는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춘천시 칠전동 유적의 경우 4기³⁷⁾, 미금시 수석동³⁸⁾의 경우 6기³⁸⁾ 보령교성리의 경우 9기³⁹⁾이다. 물론 지금까지 조사된 유적은 모두 정식발굴보다는 유적의 일부분에 대한 구제발굴이나 수습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평한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모든 구제발굴은 사전에 점토대토

34) 한림대학교 박물관, 춘천시서면신매리 신매대교건설부지 발굴조사약보고서, 1996, 8.

35) 國立中央博物館 ; 國立扶餘博物館, 전계서(주29).

36)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 寬倉里 遺蹟, 2001.

37) 한림대학교박물관, 전계서(주9)

38) 김원용, 전계서(주14)

39) 국립부여박물관, 전계서(주25)

기 유적이거나 송국리형 문화유적, 또는 특정한 종류의 유적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공사로 인한 지형변경지역에 대하여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무작위적인 발굴결과인 지금까지 구제 발굴된 두 문화유형 유적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대체적인 통계적 차이는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하며, 따라서 개별 송국리형 취락내의 전체 주거지숫자보다 개별 점토대토기 문화 취락내의 주거지의 숫자가 적다는 결론은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점토대토기 유적의 주거지의 크기가 다른 무문토기유형의 주거지의 크기보다 소형인 점토 주목할만한 점이다. 미금시수석동유적이거나 보령교성리유적 보고문의 도면을 보면 그 크기가 대략 $3 \times 5\text{m}^2$ 정도이다. 이러한 양상은 송국리식 원형주거지와는 그 구조적인 차이로 인하여 크기 비교가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경기도파주군옥석리, 서울시역삼동, 경기도여주군흔암리, 강원도춘천시신매리 등 소위 공렬토기 유형의 장방형 주거지의 평균크기에 비하여 현저하게 작은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점토대토기 유적은 시기 지역적인 범위가 가장 근접한 송국리 유형뿐만 아니라 공렬토기 문화유형과 같은 다른 무문토기 문화유형과 비교할 때 한반도 안에서의 진행의 향방과 확산의 속도, 취락의 지리적 정착지점과 지형적 입지, 전체취락의 규모와 취락내 주거지의 숫자, 그리고 개별주거지의 크기 등에서 강한 독자적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차이는 점토대토기 문화유형이 송국리형 문화나 공렬토기 문화유형으로부터 생성 또는 파생된 것이 아니라는 것과, 나아가서 그 사회성격과 생계경제 방식이 송국리형 문화나 공렬토기 문화 유형과는 다른 것임을 시사한다.

이런 시각에서 우선 사회성격의 문제를 접근하면, 점토대토기 문화는 한국식 동검과 정문경 등의 독특한 청동유물조합에 그 사회성격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 문제는 유구석부를 주제로 하는 본 논문에서 상술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독특한 청동기가 정치 권력의 표징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⁴⁰⁾ 따라서 점토대토기 문화를 담당한 사회는 정치권력 구조가 확립된 사회라는 점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송국리형 문화의 사회성격은 아직 그러한 정치적 권력의

40) 李清圭, '國'의 形成과 多鈕鏡副葬墓, 先史와 古代 14, 韓國古代學會, 2000. 6, 27-48.

존재를 입증하는 뚜렷한 표지유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현재까지 나타난 물질적 증거에 근거하여 두 문화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송국리형 문화의 사회성격을 확립된 계급적 정치권력 구조로 추론할 수 있는 물질적 증거가 미약하다.

반면에, 생계경제문제를 보면, 송국리형 문화는 쌀농사를 위주로 하는 정착농경이 그 근간임이 밝혀지고 있으나, 점토대토기 문화는 불분명하다. 통시적으로 볼 때, 점토대토기 문화도 송국리형 문화와 같이 한반도 남반부에 확산한 문화로 마침내는 쌀농사를 위주로 한 정착농경사회로 변모해 갔을 것이다. 그러나 점토대토기 유적에서는 아직 탄화미가 확인된 예가 없으며, 앞서 살펴본 분포범위, 지리적 위치, 지형적 입지 등을 보면 그 생계경제의 근간이 송국리형과 동일한 쌀농사 위주의 순전한 정착농경집단이라고 간주해 버리기에는 곤란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아직 극소수 사례이지만 백령도와 같은 도서지방에서까지 발견된 적도 있었고, 태백산맥 심산오지에 해당하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과 같이 험난한 지세와 혹독한 기후로 볼 때, 쌀농사는 물론 연중 정착이 불가능해 보이는 지점에서조차 거주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점토대토기 문화의 주된 생계경제와 그와 연관된 생활방식에 대하여는 한반도 남반부라는 농경지대, 그 이전의 송국리형 문화나 그 이후의 철기문화기의 발달된 정착농경생활에 근거하여 막연하게 동일한 것으로 추론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이전의 각형토기 문화의 평양시 남경 유적이나⁴¹⁾ 공렬토기 문화의 경기도여주 혼암리유적⁴²⁾, 그리고 송국리형 문화의 부여 송국리유적⁴³⁾ 등과 같이 모든 무문토기문화 유형 사례에서 검출되고 있는 탄화미가 유독 점토대토기 유적에서는 아직 검출되지 않고 있는 사실도 주목해볼 만한 점이다.

지금까지 개진한 점토대토기 문화의 송국리형 문화와의 상호 출자의 단절과 독특한 사회성격과 독자적인 생계경제는 유구석부의 발생, 용도, 형식 등 제반 문제를 유발시킨 토양과 같이 때문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 유구석부에 대한 기존의 단조한 설명은 새롭게 재구성되어지게 된다.

41) 김용간, 석광준,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42) 서울대학교 박물관, 欣岩里住居址 IV, 1978.

43) 國立中央博物館, 松菊里 I(1981), III(1987).

IV. 발생 및 형식문제의 재검토

1,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구석부 1식은 송국리형 문화에서 고안해서 사용한 것이고 2식은 1식에서 변화된 것으로 점토대토기 문화 단계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이 지금까지 제기된 주장이다. 1식이 송국리형 문화의 소산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반론이나 이론은 아직 없다. 즉, 소위 공렬토기 유형에 속하는 유적에서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편평석착과 단인주상석부, 그리고 각형토기 유형의 특징적인 유단석부와 마찬가지로 송국리 유형에서도 각종 석착 및 단인주상석부와 함께 1식 유구석부가 등장한다고 보는 것이며, 이러한 목공구 전용 마제석기의 범무문토기 문화적 편재현상은 정착농경 취락생활이라는 보편적 생활방식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식을 사용한 점토대토기 문화가 1식을 사용한 송국리식 문화보다 후출하는 문화라는 시기적 선후관계에 따라서 1식에서 2식으로 형식변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2식의 발생 또는 출현을 단순히 1식으로부터의 변화로 간주하면 그로 인한 謎題가 뒤따르게 된다. 즉 앞장에서 상론한 바와 같이 송국리형 문화와 점토대토기 문화가 문화적 계승과 사회적 이행에 있어서 단절적 양상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자의 소산인 유구석부가 후자에게 채택되어 일시에 새로운 형식으로 변형되어 유행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야만 한다.

만약 송국리형 문화를 이룩한 집단이나 사회가 일정한 세월의 경과와 더불어 점토대 토기 유형의 문화를 이룩하였다면 1식에서 2식으로의 변화도 저절로 풀리게 된다. 그러나 2식의 출현을 더 이상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간주하기가 어려워진 이상 1식과는 독특하게 구분되는 형태를 지닌 2식의 발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이에 대하여는 점토대토기 문화인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기존의 송국리형 문화인이 사용하는 유구석부를 보고 그것을 채택하되 자기들의 취향이나 의도에 맞게 독특한 형태로 변형시켜서 사용하였다는 것이 가장 쉽게 떠오르는 답이 될 수 있다.

여러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처럼 송국리형 문화의 초기형은 송국리유적을 비롯한 충청지방에 중심을 두고있으며, 호남과 영남을 향하여 남으로 확산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송국리형 문화와 점토대토기 문화의 출현의 시차를 고려할 때, 한반도 남반부의 일정 지역에 점토대토

기 문화집단이 처음 출현하였을 때는 이미 송국리형 문화는 한반도 남반부의 일정한 범위까지 확산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즉 송국리형 문화와 더불어 1식 유구석부도 그만큼 확산이 진행되었을 때 점토대토기 문화인이 송국리 문화권 안으로 출현하였고, 이들은 송국리인 들이 사용하던 각종 마제석기를 보고 그 가운데서 유구석부만을 선별적으로 채택하여 2식으로 변형시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에 연관시킬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는 보령진죽리유적에서 유구석부가 출토되는 송국리형 문화의 주거지 안에서 점토대토기가 발견되는 사례를 들 수 있다.⁴⁴⁾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대, 소형의 각종 단인주상석부와 삼각형 석도와 석부와 각종 석촉 등 독특한 송국리형 문화의 석기조합가운데 하필이면 유구석부만이 유일하게 채택되었는지는 여전히 궁금한 점으로 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식의 발생, 즉 점토대토기인 들이 2식을 고안하게된 이유나 배경을 어떠한 논리로 풀어 가는 것이 1식에서의 변화라는 단순논리나 송국리형 문화의 석기조합가운데 선별적 선택과 변형이라는 허술한 설명의 약점과 의문점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더 설득력이 있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새로운 대안은 점토대토기 인들이 송국리인 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1식 유구석부를 목격한 경험이 있던 없던 간에, 즉 송국리인 들이 사용하던 1식을 본 따서 2식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스스로 2식을 만들어 써야만 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부연하면 2식 유구석부는 점토대토기 인들에게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 쓴 도구이며, 그러한 필요는 그들의 생계경제나 생활방식의 필수적인 기능적 요청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즉 과거 언젠가 본 송국리형 문화인의 1식에 대한 기억의 聯想이 작용해서 착상이 가능케 된 것이던, 순전한 독창적 발명품이던 간에 송국리 인들이 1식을 독자적으로 고안해낸 것과 똑같이 점토대토기인 들이 독자적인 발상에서 그들만의 유구석부를 만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송국리형 문화의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1식 유구석부의 기술적 기능이나 문화적 역할이 점토대인들의 사회생활가운데 그대로 할애되거나 이식되거나 전용된 결과, 1식 유구석부가 점토대토기 문화에서 2식으로 형태적인 변형이나 變化만을 거쳐 그 기술적 기능과 문화적 역할이 동일하게 유지, 발휘되었다고 보기보다는, 2식은 점토대토기

44) 忠南大學校博物館, 韓國道路工事, 保寧 眞竹里 遺蹟, 現場說明會資料, 1998.

문화인들의 사회생활가운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기술적 기능과 문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 따라서 점토대토기 문화가 송국리형 문화와 총체적인 단절적인 양상을 보이는 이상 1식과 2식의 각각의 사회생활체계 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기능과 문화적 역할도 상호 그렇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런 관점에서 결론적으로 둘은 각각의 사회생활의 필요에 의해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유구석부 1식과 2식은 동일 석기의 전기와 후기형식이라는 기존의 피상적 주장과는 다른 것으로서, 그러한 2식의 1식발전설과 굳이 차별화시킨다면 1식과 2식의 獨自發生說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식과 2식의 형태를 비교하면 두 형식은 서로 계기적이거나 점진적이거나 연속적인 형식성의 변화를 보이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으며, 각각 나름대로의 독특한 면모를 지닌 완성형태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필자가 분류한 바와 같이 1식의 특징이 장방형 또는 제형의 부실팅단면, 사인, 梯形溝인 반면, 2식은 말각삼각형 또는 터널형의 부실팅단면, 직인, 弧形溝로서 그 어느 요소도 연속적이거나 계기적이거나 점진적인 형식발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1식을 구성하는 '장방형 또는 제형의 부실팅단면-사인-제형구'가 동시에 고려되어서 1식이 발생하였듯이, '말각삼각형 또는 터널형의 부실팅단면-직인-호형구'가 동시에 고려되어서 독자적인 완성형 석기로서 2식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새로운 주장이 되겠다.

부연하면, 마치 중국의 유단석부와 각형토기 문화의 독특한 유단석부, 그리고 송국리형 문화의 1식 유구석부를 각자 상호간의 독자적 발생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원에서 점토대토기 문화의 2식 유구석부도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이다. 즉, 1식 유구석부의 제형구와 각형토기문화 유단석부 등부분의 일단 꺾임이나 중국유단석부의 직각으로 꺾인 段이 착빙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능을 목적으로 각각 독특하게 만든 것과 꼭 마찬가지로 2식 유구석부도 호형의 홈을 갈아 파낸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1식과 2식은 홈을 깎다는 형태상의 일치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1식, 2식 유구석부라고 명명하기보다는 각각 梯溝(單刃)石斧와 弧溝(單刃)石斧로 別稱할 것을 제안한다.(따라서 지금부터는 1, 2식 유구석부 대신 각각 제구석부와 호구석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

V. 용도의 재검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구석부의 용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주장은 굴지구용, 또는 공구와 무기를 포함한 다목적 도구설과 전용목공구설로 구분된다.

다목적 도구설은 윤용진이 주로 경북지방에서 수집한 호구석부를 대상으로 그 용도를 추정 한 것으로서 아직 송국리유적을 비롯한 호서지방의 여러 제구석부가 거의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까지 수집된 호구석부만을 근거로 그 용도를 추정한 것이다.⁴⁵⁾ 마찬가지로 김원용도 문화재관리국소장 유구석부를 고찰하면서 윤용진의 다목적 도구설에 찬성하였는데⁴⁶⁾, 고찰대상은 물론 경북지방 출토 호구석부들로서 아직 제구석부와 호구석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제구석부의 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정이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목공전용구설을 제기하였고⁴⁷⁾, 김원용은 일본의 사용흔의 분석결과를 인정하면서 목공구설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⁴⁸⁾, 이 당시는 송국리유적을 비롯한 여러 유적에서 제구석부도 그 존재가 알려진 상태이고, 따라서 제구석부와 호구석부 및 서북한의 유단석부 및 각종 단인주상석부를 일괄해서 목공구용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배진성이 유구석부에 대하여 총정리를 시도하면서 다시 목공전용구설을 주장하였다.⁴⁹⁾ 이러한 목공전용구설의 요점은 중국의 유단석부나 서북한의 유단석부, 그리고 송국리형 문화의 각종 단인주상석부와 석착이 목공구임이 분명한 이상 동류석기인 유구석부의 용도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즉, 두 주장 모두 梯形溝, 사인, 장방형 또는 제형 횡단면의 전기형식에서 弧形溝, 직인, 말각삼각형 또는 터널형 횡단면의 후기형식으로 형식변화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유구석부는 목공전용구라고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도문제도 기본적으로 각 형식이 속한 문화에 초점을 두면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이 가능해진다. 점토대토기인들의 순수한 독창적 창안에 의하여 호구석부가 발생하였던지, 아니면 송국리인의 제구석부를 본 기억을 살려서 호구석부를 고안해낸 것이던지 간에,

45) 尹容鎮, “鐵器, 骨角器”, 韓國史I, 國史編纂委員會, 1977, 290-291.

46) 金元龍, 文化財管理局所藏 有溝石斧類, 韓國考古學研究, 一志社, 1992, 294-308.

47) 노혁진, 전계서(주1).

48)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86, 80-82.

49) 배진성, 전계서(주2).

그것이 그들의 생활상의 필요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라면 그 용도를 추적하는 초점은 호구석부의 점토대토기 문화 안에서의 문화적 기능이나 사회적 필요가 무엇인지에 맞추어져야 한다. 즉 제구석부와 일반적 형태가 유사하다고 해서 동일한 용도로 간주해버리거나, 1식에서 그 발상이 비롯된 것이라고 해서 1식의 문화적 기능이나 사회적 필요를 그대로 2식이 답습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은, 만약 각 형식을 제작, 사용한 집단의 출자가 다르고 출현의 시기와 경로가 다르고, 지리적 영역과 나아가서 생계경제와 생활방식이 총체적으로 다를 경우,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제구석부와 호구석부의 독자발생설은 그 용도에 대한 접근도 그것들이 속한 사회체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기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구석부의 경우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반도 무문토기문화 제유형의 소위 단인주상석부 계통의 석기들이 모두 목공전용구이기 때문에 그 일종인 제구석부의 용도를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호구석부의 경우는, 점토대토기 문화의 제반 문화적 성격과 사회적 특색을 고려할 때 목공전용구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우선, 양 문화의 마제석기조합이 차이를 보인다. 무문토기문화의 마제석부를 크게 별채, 절단, 절개 등 요즈음의 도끼와 같은 1차적 용도의 석부(Axe)와 요즈음의 자귀(Adze)와 같은 형태를 다듬거나 각종 홈을 파는 2차적 용도의 석부로 구분 할 때 송국리형 문화 석기조합의 경우 그러한 1, 2차 용도의 석부가 모두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2차 용도, 즉 목공전용구용 석부도 유구석부 외에도 대, 소형 편평석착류와 단인주상석부류 등 다양하다.⁵⁰⁾

반면, 점토대토기 문화의 석부는 이에 비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1차 용도로서는 경기도구리시수석동, 춘천시칠전동, 보령교성리, 양양임호정리에서는 마제석부가 출토되었다. 한편 2차용도의 목공전용구로는 수석동과 칠전동과 임호정리에서 편평석착이 출토된 것 외에는 정식으로 보고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그 출토실상을 보면 칠전동에서는 마제석부와 소형편평석착이 단지 1점씩만 출토되었고, 보령교성리에서는 유구석부 외의 목공전용 석기는 출토되지 않았다. 물론 송국리유형 주거지의 발견숫자와 그 내용에 비하면 점토대토기 문화 주거지의 숫자와 그 내용은 극소수에 불과한 셈이지만, 송국리유적 하나만을 점토대토기

50) 國立中央博物館, 松菊里 I(1978), II(1986), III(1987).
國立扶餘博物館, 扶餘郡, 松菊里 VI, 2000.

문화의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유적을 합해서 비교해 보더라도, 송국리형 문화의 석부가 용도 별로 세분화되고 그러한 분화된 기능이 체계적으로 구사된 면모를 보이나, 점토대토기 문화의 석부는 그러한 수준의 기능별 분화와 체계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점토대토기 문화의 경우는 한 도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거나, 그 생활방식이 송국리형 문화의 생활방식에 비하여 단조한 특색을 보여준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점토대토기 문화의 석기조합 안에서는 마제석검이 나타나지 않는 사실이 주목된다. 반면 송국리형 문화 안에는 독특한 소형단도 형태의 마제석검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렬토기 문화에서도 나름대로 독특한 형태의 석검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주거지 안에서 발견되는 양상으로 볼 때 당시 일반인들의 범용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점토대토기 문화는 그 독특한 한국식 청동기조합에 근거하여 한국식 청동문화라고도 부르는 바와 같이, 그 표지유물이 한국식 동검이고, 따라서 동검을 사용했기 때문에 따로 석검을 만들어 쓸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검은 정문경 등과 함께 모두 석관묘와 토광묘와 같은 무덤 안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정문경과 함께 당시 사회의 정치적 수장의 전유물로 보아야하고, 당시 사회의 일반인이 범용한 생활도구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다른 모든 무문토기문화의 석검은 석부와 마찬가지로 특수층의 전용구가 아닌 일반인의 범용도구이며, 이런 의미에서 석검의 무기로서의 일반적 기능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석기는 점토대토기 문화에서는 일반 석부와 유구석부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윤용진의 지적과 같이⁵¹⁾ 점토대토기 문화의 유구석부가 당시 사회가 필요로 한 일반인용 무기의 기능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점토대토기 문화의 유구석부를 목공전용구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점의 또 하나는 그 사회 성격과 생계경제의 특색을 들 수 있다. 송국리형 문화가 정착농경문화로서 벼농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과 한반도 남반부에서 철기문화 단계의 쌀농사를 비롯한 정착농경문화가 확산, 발달한 사실의 연속선상에서 그 사이에 놓이는 점토대토기 문화의 사회성격과 생계경제를 동일하게 규정하기에 앞서서 점토대토기 문화 유물조합의 특

51) 윤용진, 전계서(주45)

색분석을 통하여 이 문제를 접근해야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점토대토기 문화의 사회성격과 생계경제를 단순히 농경정착문화로 일반화하기 어렵게 만드는 독특한 특색들이 지목된다.

우선, 점토대토기 문화 집단의 확산과 이동의 속도가 다른 무문토기문화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그 출현시기를 기원전 4세기경으로 상정하고, 기원전 3세기경에 철기문화가 한반도 안의 기존문화에 소개된 사실을 고려할 때, 그보다 전에 출현하여 남반부로 확산한 송국리형 문화의 확산과 이동속도와는 뚜렷한 비교차이를 보이고 있다. 철기를 수반하지 않는 점토대토기 문화는 불과 2세기 동안에 서해안의 백령도에서 한반도 서부 최고의 오지인 강원도 양구군 해안뿐만 아니라 태백산맥을 넘어서 양양 임호정리와 같은 강원영동의 태백산맥 산중오지에 까지 진출하고 있는데, 그러한 진출의 향방과 범위는 정착농경민의 행동양식으로 보기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특히 양구해안은 역사시대에도 그 자연환경과 기후조건 때문에 농경정착민의 주거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었으며, 선사시대에 순수한 농경정착민이 굳이 이러한 지점에까지 거주지를 확산해야할 필요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춘천시칠전동이나 양양임호정리 등 최근에 발굴된 유적의 입지가 산중 깊숙한 산자락의 가파른 경사를 지닌 골짜기라는 점도 농경정착민의 입지치고는 매우 불편한 장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점토대토기 문화 집단의 송국리형 문화를 비롯한 무문토기문화 집단의 취락입지와 확산과정의 독특한 차이는 점토대토기 문화 집단이 순수한 정착농경민이라기보다는 사회성격상 이동성이 강하고 정착농경과 다른 독특한 생계경제방식을 영위한 집단임을 강하게 시사해준다. 아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들의 생계경제방식을 밝히기는 어려운 단계이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송국리형 문화 집단과는 분명한 분별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막연한 추정이지만, 송국리형 문화나 공렬토기 문화나 각형토기 문화의 주된 사회성격과 생계경제방식을 三韓사회의 정착농경문화에 가깝다고 할 때, 점토대토기 문화의 그것들은 초기 高句麗의 사회성격과 생계경제 방식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점토대토기 문화의 출자를 요녕지방에서 구할 경우, 이러한 추정은 앞으로 검증해 볼만한 가설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그 독특한 진출향방과 지리적 위치와 지형적 입지가 보여주는 독특한 사회성격과 생계경제방식은 호구석부를 단순히 정착농경사회의 발달된 목공전용구로 단정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그 사회성격과 생계경제방식의 독특함에 부응하는 독특한 기능을 지녔을 것으로 보게 하며, 앞서 거론한 일반인의 범용무기로서의 기능과 掘地用을 포함해서

산간의 토지개간용 도구로서도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아직 점토대토기 문화의 사회성격과 생계경제방식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그 구체적인 용도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호구석부는 단순 목공전용구로 볼 수 없으며, 송국리형 문화의 제구석부가 자귀(Adze)의 용도로 專用된 반면, 점토대토기 문화의 호구석부는 자귀 외에 도끼(Axe)로도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기와 산간용지 개간도구 등과 같은 다목적 필수범용기로 사용되었다고 간주되는 것이다.

VI. 맺 음 말

독특한 溝로 인하여 주목을 받아온 유구석부는 그 기능과 형식에 대한 중점적인 고찰이 있었고, 그 동안 새로운 발굴자료의 증가로 인하여 소속문화의 특색이 분명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소위 기존의 1식과 2식이 속한 송국리형 문화와 점토대토기 문화의 한반도 내 전체 분포권역, 확산의 지리적 항방과 범위, 지형적 입지, 취락의 크기와 주거지의 구조와 크기, 각 토기 및 석기조합상 등 총체적인 차원에서 상호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각 문화주체집단의 상호 출자상의 단절과 출현과정상의 무관함을 유력하게 지지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생활의 독자성과 문화전통의 단절 및 그에 따른 생계경제의 차이는 그 동안 자루작병용 溝의 존재 및 마제 단인석부라는 둘 사이의 형태적 일치만을 생각해서 동종의 석기가 형식변화된 것이라는 보는 이해의 수준을 넘는 발상의 전환과 그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재검토 한 결과, 1식(제구석부)과 2식(호구석부)은 각각 송국리형 문화와 점토대토기 문화가 독자적으로 발생시킨 것이며, 그 용도에 있어서도 1식(제구석부)은 목공전용구로 쓰였으나, 2식(호구석부)은 점토대토기 문화집단의 주거 및 생활 패턴의 지형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입지양태와 독특한 생활방식을 고려할 때, 아직 그 구체적인 용도의 전모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목공전용구로만은 볼 수가 없으며, 목공용 외에도 무기나 굴지구동을 비롯한 多用途 打擊道具로서 점토대토기 문화인의 독특한 생활필수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직 점토대토기 문화의 생활방식과 사회체계의 복원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의 진전결과 호구석부의 용도파악도 더욱 구체화 될 것

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을 학회에서 제시한 투고마감일전에 제출한 후 유구석부에 대한 논문 2편(배진성, 주상편인석부의 변화와 획기, 한국고고학보 제 44집, 2001. 4 : 원중호, 한반도 유구석부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00. 12)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제출된 논문의 내용을 수정하기가 곤란하고, 두 논문의 인용여부로 인하여 본 논문의 논지나 주장에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어 두 논문은 추후 유구석부에 관한 논문작성시에 참고하고자한다.>

A Review on The Korean Grooved Adze

Ro, Hyuk-Jin

In terms of Typology, Korean Grooved Adzes are mainly grouped into two major types with some variations. Type 1 is characterized by such basic attributes as slant edge; trapezoidal groove; and rectangular or trapezoidal cross-section of a body. Whereas, Type 2 is characterized by such basic attributes as vertical edge; semi-circular groove; and triangular or tunnel-shaped cross-section of a body.

Type 1 is believed to have been made and used in so-called 'Songguk-ni Culture' (송국리 문화), and Type 2 in 'Jumtodae Pottery (Ring-Rim Pottery) Culture' (점토대토기 문화) respectively. However, recent data reveals distinction as well as disconnection between two cultures in regard with origination, diffusionary direction and geographical boundary, speed in progressive movement, site's geographical location, residence's geomorphological position, size of a settlement and individual house and so on. All these conclusively show basic difference in nature and structure of the socio-economic system of both cultures.

Considering such totalistic socio-cultural difference between two cultures, simplistic conclusion that Type 1 was transformed into Type 2 merely based on both type's superfici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annot be accepted as a complete answer any more. Rather, the answer must be sought from the viewpoint that both types had been made out of their society's necessity for their specific function. Therefore, in reflection with both cultures' distinction in totalistic way of life, both Type 1 and 2 are viewed as different individual tools, and must be separately named as the trapezoidal-grooved adze and semi-circular grooved adze respectively.

Both adzes were believed to have been used for only various wood-shaping purposes. However, as abovementioned, tracing their function in their indigenous social as well as economic-subsistential system, a trapezoidal-grooved adze must have been used solely for various wood-shaping purposes, but a semi-circular grooved adze as various multiple purposes including such functions as fighting and digging and other various striking purposes. And the detail of such various multiple usage of the semi-circular grooved adze is expected to be revealed more clearly as the nature and structure of the 'Jumtodae Pottery (Ring-Ram Pottery) Culture' are going to be expounded more as archaeological findings increase.